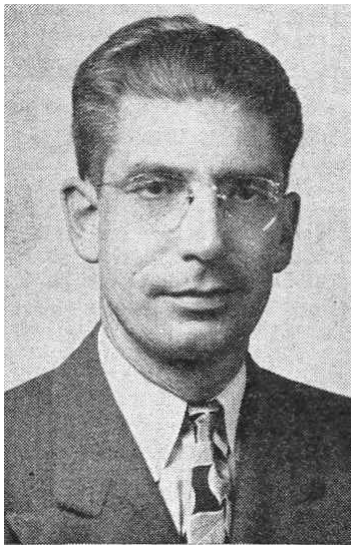


2.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유악기) 재건(1945-60)

조동호 목사(그리스도의 교회 연구소)

1) 존 채이스(John T. Chase)의 재건 노력



1946년 1월
MR. J. T. CHASE

채이스가 한국선교에서 완전히 손을 떼 시점은 1956년 1월 3일이였다.¹⁾ 해방은 되었으나 미국정부가 한국의 불안한 정세를 이유로 입국 비자를 내주지 않고 있었다. 이 무렵 채이스는 잉글우드하이츠 그리스도의 교회(Inglewood Heights Church of Christ)를 맡아 사역하고 있었고, 퍼시픽성서신학교(Pacific Bible Seminary)에서 매주 하루씩 강의하면서 거의 매일 강연을 다녔으며, 모금과 선교사 모집까지 병행하였다. 그 결과 모금액이 1,402달러 7센트에 달하였다.²⁾

끊임없이 문을 두드린 끝에 채이스는 드디어 1946년 12월 23일 워싱턴 주 시애틀에서 '머린 펄컨'(Marine Falcon)호에 승선할 수 있었고, 심한 폭풍과 거친 파도와 뱃멀미에 시달리며(배 안에서 2명이 사망) 예정보다 많이 늦은 1947년 1월 7일 일본 요코하마 항에 도착하였다. 일본에서는 큐슈에서 근무하던 할 마틴(Hal Martin) 군목이 마중을 나와 주었다. 마틴은 수개월 후에 김포 미항공기지로 전근되어 1947-48년 사이에 선교사의 부재를 메웠다. 채이스는 1941년에 다녀간 지 꼭 6년 만

1) John T. Chase, "Final Report on 'Chapels Fund'," *Christian Standard*, 28 January, 1956, p. 60.

2) "Finances," *The Korean Messenger*, May 1946, p. 1.

에 서울에 도착하여 군부대 숙소
 소에 여장을 풀었고, 서울에서
 한 달 반가량 체류한 후 1947
 년 3월 1일 인천항에서 샌프란
 시스코로 향하는 미육군 수송선
 '캡스 제독'(Admiral W. L.
 Capps)호에 승선하여 3월 5일
 배 안에서 '선교사의 발자
 취'(Missionary Footsteps)란
 글을 썼다. 그 글에 보면,³⁾ 채
 이스는 서울에 머무는 동안 선
 교부 재산을 되찾기 위한 가능
 한 모든 일을 하였고, 교회들을
 방문하여 목회자들과 성도들을
 격려하였으며, 매주 힘닿는 대로
 생필품을 공급해 주었다.



좌측부터 공욕 할 마틴(Hal Martin)과 최상현 목사
 선교사가 없던 1947년 후반기에 전군을 명 받고 가족
 (Evelyn, Gary)과 함께 김포 항공기지에서 47-48년
 사이에 관두하면서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들을 많이 도왔다.



채이스 선교사가 1947년 2월 초에 방문했던 필운동 그리스도의 교회.

채이스는 이 교회를 예전처럼 내수동교회로 불렀으며, 선교지원을 많이 마련된 이 예배당을 회생의 결과라고 적었다.

기독교회선교부 소속으로써 일제의 모진 압제와 탄압이란 불
 같은 시험을 견디고 끝까지 살아남은 교회는 최상현 목사의 돈
 압동 그리스도의 교회와 성낙소 목사의 내수동 그리스도의 교

3) John T. Chase, "Missionary Footsteps," *The Korean Messenger*,
 May 1947, pp. 7-8.

회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교회들은 채이스에게 남다른 감회와 깊은 감명을 주었고, 자신의 희생을 값지게 한 보람찬 열매들이었다. 따라서 채이스는 예전의 사역자들을 찾는 일에도 최선을 다하였다. 길에서 우연히 만난 김요한 목사는 해방 전 세 차례나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난 후에 목회를 쉬고 있었고, 김문화 목사는 신사참배 거부로 여러 해 동안 투옥되었다가 풀려났으나 몸이 이미 망가진 상태에서 신탄진에 머물고 있었으며, 박판조 목사는 소련군정이 통치하는 북한에 머물며 한의 업에 종사한다는 소문만 들었다. 채이스는 북한에서 남하한 동석기 전도자도 만났다. 동석기는 전 재산을 소련군에게 몰수당하였고, 사모와 자녀들 일부가 여전히 북한에 남아 있었다. 채이스는 미국에 돌아가 목회하는 동안에도 구호물자를 한국에 보내는 일에 힘썼다.

채이스는 1948년 10월 17일 서울로 다시 돌아왔고, 힐 요한 선교사 가족도 1949년 2월 18일 서울로 돌아왔다.⁴⁾ 채이스는 한국인성서훈련원의 운영을 힐에게 맡기고, 2월 중순경에 미국으로 돌아가 1949년 9월 1일까지 주간지 <그리스도인 표준>(*Christian Standard*)과 함께 '한국에 예배당을'(Chapels for Korea) 캠페인을 펼치며 5만 달러 기금조성에 힘썼다. 이 모금액이 달성되면, 채이스 가족은 동년 9월에 한국으로 아주 돌아올 계획이었다. 그러나 채이스 가족은 예정했던 기간에 한국으로 돌아가지 못하였다. 그해 7월경까지 모금액수가 대략 17,500달러에 그쳤고, 목표금액이 달성된 것은 6.25동란이 터진 직후인 1950년 7월이었다. 모금된 돈은 총 5만 62달러 90센트였다.⁵⁾ 이 기금은 전후 군대지원프로그램(Armed Services Aid Program)에 3천 달러가 사용되었고, 일본으로 피신한 힐 요한 가족과 폴 잉그람 가족의 거주지를 구입하는데 사용되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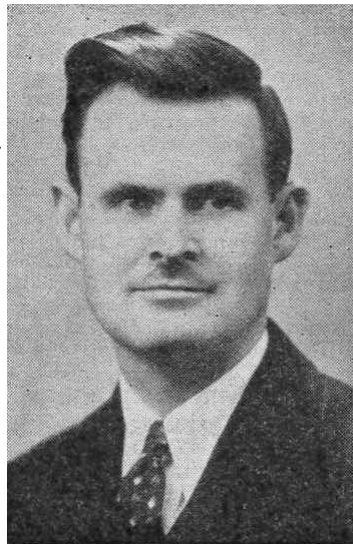
4) "The Year 1948," "Personnel Transfers" and "An Announcement," *The Korean Messenger*, March 1949, pp. 1, 3, 4.

5) John T. Chase, "Proposed Goal Reached in 'Chapels for Korea' Campaign," *Christian Standard*, 8 July, 1950, p. 420.

다. 나중에 이 돈은 환수되어 한국교회를 위해서 사용되었다.⁶⁾ 채이스는 1956년 1월 3일 테일러 선교사의 후원교회인 오클라호마 주 마이애미의 제일 그리스도의 교회에 잔액 18,424달러 88센트를 송금함으로써 한국선교에서 완전히 손을 뗐다.⁷⁾

2) 힐 요한(John J. Hill)의 재건 노력

힐 요한이 한국 선교사에 지원한 것은 졸업을 앞둔 1936년 봄에 채이스가 존슨성서대학을 방문하였을 때이다.⁸⁾ 힐이 부인 에스더(Esther Beavans)와 함께 한국에 입국한 것은 1939년 6월 21일이었다. 그러나 힐 가족은 이듬해인 1940년 11월 16일 본국으로 철수하였다. 그해 10월에 미국정부는 한국체류 자국민들에게 전쟁의 위협이 커지고 있으므로 한국을 떠날 것을 충고하였고 배를 보내 철수를 도왔기 때문이다.⁹⁾ 결국 전쟁은 1941년 12월 7일 일본이 미국 하와이 주 오아후섬 진주만에 있던 미군 기지를 기습 공격함으로써 터지고 말았다.



1946년경
MR. J. J. HILL

6) John T. Chase, "Chapels to Be Built in Korea," *Christian Standard*, 27 March, 1954, p. 201.

7) John T. Chase, "Final Report on 'Chapels Fund'," *Christian Standard*, 28 January, 1956, p. 60.

8) "Another Missionary for Korea," *The Korean Messenger*, October 1938, p. 1.

9) 민경배, <한국기독교회사>(서울: 연세대출판부, 2007), p. 522; 김승태, <한말·일제강점기 선교사 연구>(서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06), p. 229.

한국에서 철수한 힐은 미시건 주 스토티스(Sturgis)에서 1941년 1월부터 1943년 4월경까지, 웨스트버지니아 주 파이



한국성서신학교 교수진: 좌측부터 성낙소 목사, 김요한 선교사, 최상현 목사(6.25동란 때 남북), 백낙중 목사(6.25동란 때 피살)

던 시티에서 1944년 9월까지 목회하였다. 그리고 1944년 10월 5일 미육군 군목으로 입대하여 미국, 필리핀, 일본에서 총 19개월간의 복무를 마치고 1946년 5월 14일 제대하였다. 힐은 제대 후 미국정부로부터 한국에 가도 좋다는 허락이 떨어질 때를 기다리는 동안 1946년 7월부터 인디애나 주 월턴(Walton)과 온워드(Wonward)의 그리스도의 교회들에서 목회하였다.¹⁰⁾ 9월 9일부터는 제대군

인지원법(Army G. I Bill of Rights)에 따라 장학금을 받고 버틀러대학교 신학대학원(School of Religion, Butler University)에 입학하여 이듬해 1947년 8월 8일에 M.A. 학위를 받았다.¹¹⁾ 힐 선교사 가족이 한국에 재입국한 것은 1940년 11월 16일 한국에서 강제로 철수한지 8년 3개월만인 1949년 2월 18일이었다. 이 무렵 브루스(Bruce)가 일곱 살, 버지니아

10) "Latest News from the Hills of Korea," *The Korean Messenger*, October 1946, p. 2.

11) John J. Hill, "Latest Word from the Hill Family," *The Korean Messenger*, December 1947, pp. 1, 3-4.

(Virginia)가 다섯 살, 수잔(Susan)이 4살이었다.¹²⁾

힐 선교사의 서울에서의 재건사역은 1949년 2월 18일부터 1955년까지 이어졌다. 힐 가족은 연지동에 있는 건물, 곧 송월동 선교부 건물과 사이즈가 비슷한 건물을 남장로교회로부터 월 75달러의 임대료를 주고 사용하였다. 힐 가족은 그 건물에 들어가 살면서 그곳에서 3월 15일 한국인성서훈련원을 개교하였다. 또 이 연지동 건물에 침례당을 만들고 침례를 베풀었는데, 이 신학교의 학생이기도 했던 김포교회의 최춘선 목사의 부인이 힐이 구입한 천으로 5일간에 걸쳐 꿰맨 여섯 벌의 침례복이 사용되었다.¹³⁾

힐은 학생이 많아지자 신학교를 성낙소 목사의 필운동교회로 옮겨 본격적으로 목회자 양성에 들어갔다. 그러나 또 다시 불행하게도 이듬해인 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의 갑작스런 남침으로 한국전쟁이 발발하여 26일 새벽 3시경에 인천에서 피난 배를 탔고, 배 안에서 부인 에스더에게 산통이 있었으므로, 배가 일본 땅에 닿자마자 후쿠오카(Fukuoka)의 군병원으로 직행하였다.¹⁴⁾ 에스더는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린다(Linda)를 출산하였고, 태어난 지 6일된 갓난아기를 안고 26시간이나 열차를 타고 동경에 도착하였으며, 요츠야선교부의 해롤드 심즈 선교사의 집에 머물 수 있게 되었다. 심즈 가족은 7월 11일부터 6주간 집을 비울 예정이었다.¹⁵⁾

힐은 일본에 머무는 동안 한국어 공부에 주력하는 동시에 요츠야선교부의 조선인기독교회와 일본인기독교회들을 도왔다. 9

12) John J. Hill, "Overcoming Obstacles in Korea," *The Korean Messenger*, July 1949, p. 2.

13) *Ibid* See also John J. Hill, "Korean Missionaries Face Obstacles Because of Lack of Facilities," *Christian Standard*, 27 August 1949, p. 549.

14) John T. Chase, "Mr. and Mrs. John J. Hill Are Safe in Army Hospital in Japan," *Christian Standard*, 15 July, 1950, p. 436.

15) "Heartaches of War" and Harold Sims, "Missionary's View on Korean War," *Tokyo Christian*, July-August 1950, pp. 2-3.

월 28일 서울수복 후 11월 5일 한국에 돌아와 5주간 머무는 동안 서울 장충동의 임대건물에서 11월 28일 신학교를 개교하였으나 중공군의 전쟁개입으로 전쟁이 악화되어 그해 12월 11일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야 했다.¹⁶⁾ 포기를 모르던 힐은 이듬해인 1951년 7월 3일 한국으로 돌아와 서울 송월동 선교부에서 8월 4일 전쟁고아들을 돌보는 그리스도의 교회 보육원(Christian Mission Orphanage)을 시작하였고, 이후 선교부에 제휴된 여러 보육원들(인천, 대전 판암동 및 대구)의 설립과 유지에 도움을 주었다.¹⁷⁾

3) 채이스와 힐의 재건 노력의 결과

채이스의 가장 큰 업적 가운데 하나가 송월동에 선교부 재산을 만든 것이고, 또 1942년경에 일제에 몰수당했던 송월동 선교부 재산을 각고의 노력 끝에 10여년만인 1952년경에 되찾은 것이었다.¹⁸⁾ 이 재산을 기반으로 오늘의 서울기독대학교가 세워졌다.

채이스와 힐의 또 다른 큰 업적은 불어난 교회의 숫자에 있다. 일제의 탄압으로 해방직후 두 개(돈암동교회와 필운동교회)뿐이었던 기독교회선교부의 교회 숫자가 채이스와 힐이 동시에 사임한 1955년에는 75개로 늘어나 있었다.¹⁹⁾

해방 후 서울지역에 몇 개의 교회들이 추가되었다. 요츠야선

16) John J. Hill, "Monetary Losses Slight Compared to Suffering of Koreans, Says Missionary," *Christian Standard*, 16 December 1950, p. 787; "Hill Gives Outline of Work in Korea," *Christian Standard*, 27 January 1951, p. 51.

17) John J. Hill, "A Short History of the Churches of Christ in Korea," <췌메론 제7호>(한국성서신학교, 1972).

18) *Ibid.*

19) "Preachers and Problems," *For Christ in Korea*, June 1956, p. 5; Harold Taylor, "History of the Korean Christian Mission," *For Christ in Korea*, October 1959, pp. 3-4.

교부의 서울 제2교회의 담임목사였던 이난기(협성신학교 졸업)와 용산교회, 서울 제4교회 담임목사였던 윤낙영(경성성서학원 졸업)과 아현동교회가 최상현과 성낙소의 노력으로 기독교회선교부의 교회들에 합류하였고, 최상현 목사의 오랜 친구 백낙중(외국어학교 및 한국인성서훈련원 졸업) 목사가 자신이 운영하는 공민학교에 공덕교회를 세웠다. 또 백낙중은 힐이 운영한 신학교에서 힐, 성낙소, 최상현과 더불어 교수로 섬기던 1949-50년 사이에 왕십리 교회를 세워 시무하였다. 이밖에도 성낙소 목사의 아들 성수경(한의사, 단국대, 경희대, 서울성서신학교 졸업) 목사가 위동교회를 개척하여 부자가 필운동교회와 위동교회를 번갈아가며 섬겼다.

채이스와 힐 선교사의 재건 노력에 날개를 달아준 것은 부강교회의 김은석 목사와 목포교회의 최요한 목사였다. <한국인 전령>(The Korean Messenger)에 따르면, 전쟁 중에 2개(돈암동교회와 내수동교회)뿐이었던²⁰⁾ 교회가 1949년에는 19개가 되었고,²¹⁾ <목포 그리스도의 교회 50년사>에 의하면, 1950년 말에 42개가 되었다.²²⁾ 힐은 그 공로를 김은석에게 돌렸다. 박점상 목사와 최상현 목사의 증언으로 볼 때, 장로교회 목사였던 김은석이 그리스도의 교회로 환원한 것은 1946년이었던. 1947-48년 기간에 김포 항공기



김은석 목사
(1902.05.14음력-1963.01.21)

20) <한국종교사>(김득중)에서는 1943년에 6개(교역자 6명, 교인 909명)로 보고되었다. 이들 교회들이 요츠야선교부의 교회들이었는지 혹은 기독교회선교부의 교회들이었는지는 분명치 않다.

21) The Korean Messenger, July 1949.

22) 목포 그리스도의 교회, <목포 그리스도의 교회 50년사 (1956-2006)>(2006), p. 291.

지에 근무한 미 공군 군목 할 마틴(Hal Martin), 최상현, 성낙소 등이 김은석 목사의 초청으로 부강을 왕래하였다. 1955년 11월에 채이스와 힐을 대신해서 한국에 입국한 해롤드 테일러(Harold Taylor) 선교사는 전수조사 후 1955년 말의 교회숫자를 총 75개로 보고하였고,²³⁾ <한국에 그리스도를!>(For Christ in Korea) 1958년 2월호에서는 김은석 목사를 “남한에 약 25개 교회를 세운 복음의 옹호자”(Gospel father)라고 보고하였다.²⁴⁾



최요한(용환) 목사(1923.01.20-1998.03.28)

최요한(용환) 목사는 1946년 2월 영흥장로교회 부흥집회 때 김은석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1946년 4월 전남 함평군 손불면 신흥리(궁산리)에 그리스도의 교회, 동년 10월 전남 함평군 손불면 주포리(석성리 청학동으로 이전)에 그리스도의 교회, 이듬해인 1947년 1월초 전남 무안군 현경면 평산리에 그리스도의 교회, 1947년 7월에 전남 영광군에 무영 그리스도의 교회, 1948년 3월초 광주 사동에 그리스도의 교회, 1950년

전북 고창에 그리스도의 교회, 1952년 1월초 전남 목포에 그리스도의 교회를 개척하여 총 7개 교회를 개척하였다. 5년 후인 1957년 10월 1일에는 오늘의 목포 그리스도의 교회를 개척하였다. 이 무렵에 전남 영암군 학산면 상월리 교회를 환원시켰고, 이어서 진도 군내 그리스도의 교회, 신안 매화 그리스도의 교회, 여수 백초 그리스도의 교회도 환원시켜 총 4개 교회를 환

23) "Preachers and Problems," *For Christ in Korea*, June 1956, p. 5.

24) "One Way," *For Christ in Korea*, February 1958, p. 4.

원시켰다.²⁵⁾

4) 선교사들의 입국과 활동



앞줄 우측부터 성낙소 목사, 김동수 통역, 폴 잉그람(1953년경)

1950년대 초에 이르러 몇몇 선교사들이 더 입국하였다. 폴 잉그람(Paul Ingram)은 가족과 함께 힐의 한국선교를 돕기 위해서 1952년에 일본 도쿄에 도착하였고, 힐의 가족과 함께 잉그람의 가족도 1953년 전쟁이 끝날 때까지 일본에 체류하였다. 이 기간에 힐과 잉그람은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가족을 일본에 남겨둔 채 한국에 들어가 사역하였다. 힐의 가족은 1953년 5월 경에 안식년으로 미국에 돌아갔고, 잉그람이 힐을 대신하였다. 힐이 안식년을 마치고 1954년에 돌아왔을 때 잉그람은 추가로 매입한 선교부에 붙은 땅에 미군의 도움을 받아 3층짜리 신학교 건물을 세웠고, 1954년에 입국한 메리 반힐(Mary Barnhill)과 1953년에 입국한 리라 톰슨(Lila Thompson)은 선교부보육원(부평으로 이전)을 포함하여 다섯 개의 보육원을 돌보는 일에 관여하였다.²⁶⁾

25) <목포 그리스도의 교회 50년사>, pp. 548-550.

26) Harold Taylor, "History of the Korean Christian Mission," *op. cit.*

그러나 선교사들은 모두 1955년에 한국을 떠나야했다. 1955년에 메리 반힐(Mary Barnhill)과 리라 톰슨(Lila Thompson)은 둘 다 간염에 걸렸다. 이 때문에 반힐은 10월에 한국을 떠났고, 같은 10월에 톰슨은 미군 중사 히람 힐러(Hiram Hiller)와 결혼하였다. 해롤드 테일러가 1955년 11월에 한국에 입국했을 때 서울에 남아 일하고 있었던 선교사는 한 달 전에 결혼한 리라 톰슨 힐러(Lila Thompson Hiller)뿐이었다. 힐러는 이듬해인 1956년 3월에 미국으로 돌아갔다.²⁷⁾

힐의 부인 에스더 비반즈가 한국인 2명과 부적절한 혼외관계에 빠진 일을 잉그람이 채이스에게 보고한 일로 힐과 잉그람, 힐과 채이스 사이에 다툼과 분열이 있었고, 에스더가 가출함으로써 선교사역이 중대한 위기를 맞게 되었다. 이에 교감이었던 성낙소 목사는 1954년 6월 25일 신학교를 휴교조치하고, 채이스에게 내한을 요청하였다. 동년 9월 하순에 내한한 채이스는 성낙소, 힐, 잉그람 등과 함께 회의를 열어 힐과 잉그람을 귀국하도록 조치하였다. 폴 잉그람은 1955년 1월 8일 귀국하였고, 힐은 버티다가 7월 5일에 한국을 떠났다.²⁸⁾



해롤드 테일러 선교사(1959년경)

일본에서 사역을 하고 있던 해롤드 테일러(Harold Taylor)는 안식년으로 미국에 머물고 있어서 관련 기사들을 모두 읽고 있었다. 테일러는 1953-55년 기간에 채이스와 힐 사이에 양립할 수 없는 입장차가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의

27) Ibid.,

28) 노봉욱 편저, <힐 요한 선교사의 한국 선교>(재단법인 한국그리스도의 교회 유지재단, 2006), p. 24; 성낙소, '제21장 두 선교사 귀국과 신학교 휴교와 유무악기과 합동 건,' <기독의 교회와 성낙소와의 관계> 김종기, 조동호 편집 및 부록(그리스도의 교회 연구소, 2010).

후임자로 한국에 오기 전에 두 사람 모두에게 기독교회선교부에서 은퇴해 주기를 요청하였다. 테일러는 일본에서의 사역을 정리하고 1955년 11월에 가족과 함께 입국하여 존 T. 채이스, 존 J. 힐, 폴 잉그람, 메리 반힐, 리라 톰슨 힐러가 일궈놓은 기독교회선교부의 모든 사역과 재산을 인수받았다. 게다가 1949년 이후 채이스가 모아놓은 거액의 '한국에 예배당을' 기금까지 인수받음으로써 마음껏 날 수 있는 날개까지 얻은 셈이었다. 테일러는 이 기금으로 11개의 새 예배당을 건축시켰고, 1개의 구 건물을 장로교회로부터 매입하여 그리스도의 교회로 사용토록 하였으며, 34개의 교회들을 신축 또는 수리토록 하였다.²⁹⁾ 또 테일러는 송월동 선교부의 재산(토지 396평과 그 위에 세워진 선교부 건물과 신학교 건물)을 1959년 6월 3일까지 모두 팔고,³⁰⁾ 7,087평의 역촌동 땅위에 서울성서신학교(현 서울기독대학교)의 새 캠퍼스를 마련하여³¹⁾ 1963년에 개교시켰다.

29) Harold Taylor, "History of the Korean Christian Mission," *op. cit.*

30) "Moving Days," *For Christ in Korea*, October 1959, p. 1.

31) "The New Location," *For Christ in Korea*, May 1960, p. 3.